

## 칼럼

### 재림을 위해 교회를 무장시키자

지난 2년여 간 성령께서는 제 마음에 “예슈아의 재림을 위해 교회를 무장시키라”는 위임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교회, 종말의 주제에 대해 가르칠 때 국제 언론이라는 정황을 사용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독교 기관을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이들, 그러니까 진정으로 거듭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국제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무리를 ‘메시아의 몸’ 혹은 ‘메시아의 신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계 19:7 –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눅 1:17 –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예슈아께서 예루살렘으로 재림하시기에, 마지막 때엔 이스라엘과 관련한 영적 갈등이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위임을 다르게 풀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교회를 무장시키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 여왕에게 주어졌던 시험처럼, 교회도 지하드와 반유대주의가 아닌 이스라엘의 편에 설 수 있을지 시험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때를 위하여 왕국에 들어” 올 것입니다(에 4:14).

교회는 재림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영적 자질을 갖춰야 합니까?

1. **순결** – 예슈아께서는 순결하고 흠 없는 신부를 데리러 오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함으로 행하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 타협이 없어야 합니다.
2. **영광** – 메시아 예슈아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체험할수록, 주님의 영원한 영광과 능력은 점점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3. **영적 전쟁** – 재림까지는 커다란 전쟁과 환란들이 있을 것이기에, 메시아의 몸은 기도와 예언뿐 아니라 실질적인 면에서 해야 할 몫을 다하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인쳐져야 합니다(계 7:3).
4. **언약** – 성경적 믿음은 학구적이거나 철학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언약적인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쌍방 간에 영원하고 거룩하게 맺어진 계약으로, 우리는 청령과 충절을 다해야 합니다.
5. **땅을 취함** – 예슈아께서는 땅에 대한 소유권을 탈환하고 마귀를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 오십니다.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했듯, 전세계 교회는 재림 때에 지구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6. **통치** – 첫째 부활에 살아나는 사람들은 천 년 동안 예수아와 더불어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때 주님과 함께 다스리기 위해, 우리에게는 지금이 판단과 권세, 분별, 통치의 인성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7. **사랑으로 연합** – 그 분을 더욱 사랑할수록, 우리는 그 분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은 화해로 우리를 인도하고, 화해는 관계로 관계는 협력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세계 복음화와 부흥을 위한 협력 말입니다.

기도 제목

### 쿠웨이트와 두바이에 간 폴 윌버

금주 폴 윌버 Paul Wilbur 는 두바이와 쿠웨이트에서 아웃리치를 이끌고 경배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아닉 유대인이 이슬람 국가들에서 아웃리치를 하고 경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두바이에선 4,000 명 이상이 참석했고 성령의 임재가 강력했다고 합니다. 폴은 중동에서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돌파구가 됐다고 설명합니다. 많은 이들이 구원을 위해 기도 받았습니니다. 지속적인 열매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번 주에 두바이에선 정부 지원의 금융 기관이 6 백억 달러 채무의 지불 불능을 선언해 금융 위기가 터졌습니다. 이번 선언으로 전세계는 충격에 빠졌고 유럽 주식 시장 여러 곳에선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 하워드 베이스와 브엘세바

이스라엘의 2 대 히브리어 신문인 <마아리브> 주말 판에서는, 2 장을 전면 할애해 브엘세바에서 초정통파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하워드 베이스와 그의 공동체가 소개되었습니다. 기사는 중립적 입장을 유지했고, 이스라엘 메시아닉 공동체를 위해선 긍정의 일보였다고 보입니다. 예수아의 사랑의 빛이 그들의 간증을 통해 수많은 독자들에게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IHOP의 부흥

캔자스 시 IHOP 에 있는 저희 동료들은 놀라운 주님의 만지심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www.ihop.org](http://www.ihop.org) 에서 소식을 읽고 영상을 보시면 진정 임하고 있는 부흥에 힘을 얻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 이슬람 지하드에 말한 대니얼 파이프스

<제루살렘 포스트>는 대니얼 파이프스 Daniel Pipes 가 최근 터키의 에르도안 총리와 이란의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이 회동한 것에 대해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두 종류의 “이슬람주의자”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흐마디네자드처럼 폭력과 테러를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둘째는 에르도안처럼 시스템의 틀 안에서 점진적 통치권의 인수를 위해 일하는 자들입니다. 터키는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러나 에르도안은 조금씩 조금씩 급진적 이슬람 법(샤리아)을 도입해 왔습니다.

파잇스는 기록합니다.

‘전자가 더 많은 사람을 죽이지만, 후자가 더 큰 위협을 가합니다. 지난 30년을 돌아보면, 테러로부터 생존한 사람들은 급진주의 이슬람에 굴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81년 이집트에서 안와르 사다트가 암살된 후에도 그랬고, 9/11 테러 후에도, 2002년의 발리 폭발 후에도, 2004년 마드리드 폭파나 2005년의 삼만 폭파, 이스라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서의 테러 행위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테러는 죽이고 위협하지만, 현존하는 질서를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러나 대중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아는 이슬람 주의자들은 모로코, 이집트, 레바논, 쿠웨이트 등 무슬림이 다수를 이루는 국가들에서 주된 반대파를 이룹니다. 이슬람주의자들은 1992년에 알제리에서, 2001년 방글라데시에서, 2002년 터키에서, 2005년 이라크에서 선거를 통해 승리했습니다. 한번 권력을 얻으면, 그들은 샤리아를 향해 나라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흐마디네자드가 가두 시위자들의 분노를 사고 빈 라덴은 굴 속에 숨어있을 때, 에르도안은 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터키 공화국을 재편하고 있습니다.’